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문 은 미¹⁾

최 명 선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대학(원)생 538명이었다. 측정도구
로 부모화 척도, 자아분화 척도,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상관분
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결
과, 부모화와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부모화의 물리적 부모화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졌으며, 정서적 부모화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졌으며,
불공평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의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가족퇴행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졌으며, 정
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정체
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장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부모화,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 정체감

* 2008학년도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학 석사 (E-mail : anne332@naver.com)

2)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업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확립은 ‘자신을 남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건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대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 시기는 여전히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자아정체감이란 개체로서의 실체인 자아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신체적, 대인적,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 민족적, 정치적, 역사적 과정과의 상호작용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박아청, 1990).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청년기에는 친밀감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Erikson, 1963). 자아정체감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직업을 결정하고, 타인과의 관계형성 기준이 명확해져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옥경희, 1999). 즉, 청소년시기에는 자아정체감 확립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 미래관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인식을 한

다(이영미, 김경화, 민하영, 2006).

자아정체감을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분리개별화, 자율성 등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 관련 변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관심, 가족의지지, 교사의지지, 또래의지지 등 각종 사회적 지지관련 변인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배, 권중돈, 1998; 김형태, 1989; 김희영, 1986; 이승국, 1999; 이차선, 1998; Campbell, Adams, & Dobbs, 1984; Greenberg, Seigel, & Lietch, 1983; Hoffman, 1987, 1984; Hoffman & Weiss, 1987; Josselson, 1988; Lopez, Compbell & Watkins, 1988). 특히 부모관련 변인은 자아정체감을 비롯한 성격, 정서, 행동양식 등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동일시 대상이 되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때 자아정체감 등 청소년기 발달에 도움이 된다. 박영신, 김의철(2003)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한 ‘효’와 관련이 있으며,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모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임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를 강조하여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최재석, 1982). 떼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를 바람직한 아이로 보며 어린 아이에게 성인의 모습을 기대하며 성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김경동, 1964; 김효창, 2002;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정태연, 최상진,

최재석, 1982). 그러나, Bowlby(1973)는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어린시기부터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모자녀간의 역할전이를 부모화(Parentification)라 한다. 이런 경험은 어린 시절 수용, 이해 및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성인이 자녀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이러한 결과 자녀가 부적절할 정도로 과도한 부모역할을 하며, 부모-자녀관계가 지속적으로 불공평할 때 파괴적 부모화가 나타날 수 있다(Jurkovic, 1997). 그러나 부모화가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부모에 대한 부모역할이 과도하더라도 일시적인 경우나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 부모화 역할을 내면화하지 않는 적응적인 부모화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부모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지각하여 ‘죄송함’과 ‘감사함’을 갖는다(박영신, 김의철, 2003). 특히 가정에서의 화목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김혜은, 이진순, 2006). 그러한 관계가 청소년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되어

과도한 물리적·정서적 부모화 경험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화 경험은 ‘효와 책임감’이 포함되어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희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부모의 격려와 칭찬이 따르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자아분화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Bowen(1978)은 자아분화를 ‘어린이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가족체계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인지와 정서, 개별과 관계의 조화를 강조했다. 부모-자녀관계 개별화가 미약할수록 자녀가 대인관계에서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기 어렵고,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고와 감정 구분이 어려워 자아개념의 발달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이신숙, 2000; Bowen, 1978). 그러나,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며, 목표 지향적 삶을 살아간다(Bowen, 1978). 가족 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균형가족의 청소년들은 다른 범위가족의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아 적응을 잘하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며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한다(전귀연, 1994; 전춘애, 1994).

부모-자녀간 건강한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질 때 자아정체감 확립 등 발달과제 수행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Blos, 1979). 심리적 독립이란 부모와 강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서구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기실현을 해 나가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며, 원가족으로부터 물리적, 정서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분리되었는지의 정도를 가지고 성숙의 지표를 삼는다(Hsu, 198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며 자기절제와 타인 배려를 통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화와 의무수행의 정도로 성숙의 지표로 삼는다(김효창, 손영미, 박정렬, 최상진, 2000; 최봉영, 1996; Kim, Youn, & Choi, 2001). 즉, 서구문화권에서는 기독교적 사상의 영향으로 평등이나 자율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며, 우리문화권에서는 권위와 양보, 겸손, 헌신 같은 유교적 규범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이동희, 1999).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율성 획득과 함께 관계를 중시하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정서적 부담감을 함께 느끼고 있으며, 부모의 엄격함을 간섭이나 통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됨을 확인한 바 있다(김혜온, 이진순, 2006; Kim & Choi, 1994).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율성보다는 어느정도 부모의 통제나 간섭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와 서구의 청소년의 문화적 차이는 심리발달측면에서도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변인 중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화 경험 변인의 경우, 서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부모가 되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도한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그 행위로 인해 부모와 타인에게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은 청년기 발달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와 서구의 다른 측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분화의 경우에서도 서구에서는 부모와의 독립을 의미하는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정 내 화목을 중시는 등 관계성을 중시하여 결혼이후에도 지속적이며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아분화 또한 청년기 발달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서구의 다른 측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자아분화와 자아정체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화 및 부모자녀관계 영역에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며, 자아정체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상담 및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청년기 자아정체감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1.9%), 놀이방 등 보육시설 5명(1.0%), 기타가 3명(0.6%)의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 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3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이 청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써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4년제 대학(원)생 548명이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538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279명(52.2%), 여자가 254명(47.8%)의 분포를 보였다. 나이별로는 20세 이하가 279명(52.3%), 21세~23세가 121명(22.7%), 24세~26세가 133명(25.0%)의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31명(44.8%), 2학년이 92명(17.8%), 3학년이 110명(18.2%), 4학년이 82명(15.9%), 대학원이 10명(1.9%), 휴학이 7명(1.4%)의 분포를 보였다. 장애를 가진 가족유무는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가 41명(7.7%), 없다가 489명(92.3%)의 분포를 보였다. 성장기 주 양육자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446명(84.5%), (외)조부모가 64명(12.1%), 친척, 친지가 10명

부모화 척도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토대로 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신주연(2003)과 조은영(2004)이 번안한 부모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로 성장기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고자 했으며, 물리적(Instrumental) 부모화, 정서적(Emotional) 부모화, 불공평(Unfairness)의 3개 하위요인으로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번안 과정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 ‘드물게 그랬다(2점)’, ‘종종 그랬다(3점)’, ‘매우 그랬다(4점)’의 4단계 Likert 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물리적(Instrumental) 부모화는 집안일을 했는지, 가족들 돌보기를 했는지, 집안의 돈 문제를 걱정했는지 등을 측정한다. 정서적(Emotional) 부모화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걱정을 했는지, 가족들이 어려울 때 자신이 어른처럼 중간역할을 하거나, 문제만 생기면 자신이 휘말리거나 자신 때문이라

고 걱정을 했는지 등을 측정한다. 불공평(Unfairness)은 가족들 중에서 자신만 소외되었고, 상호관계가 편안하지 않고, 자신만 희생이 되고, 가족 안에서 책임이 형평에 맞지 않았는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물리적 부모화 .67, 정서적 부모화 .76, 불공평 .74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척도

Bowen의 자아분화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분화 수준을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을 살펴보는 5개의 하위 척도로 나누었으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Likert 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분화 하위 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한다. 자아통합은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가족투사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 대해 근심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부모의 미분화 특성을 특정자녀에게 얼마나 투사하는지를 측정한다. 정서적 단절은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부모나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단절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가족퇴행은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의 본분을 다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가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구성원들이 역기능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67, 자아의 통합 .48, 가족 투사 .87, 정서적 단절 .74, 가족 퇴행 .80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

박아청(1999)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내용을 약간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을 살펴보는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채점은 5점까지 Likert 방식을 적용하였고,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으로 채점하였다. 채점결과 점수가 높은 경우에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 하위 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성은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능력감, 즉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를 측정한다. 자기 수용성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

도를 측정한다. 미래 확신성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측정한다. 목표 지향성은 ‘나는 꾸준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주도성은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를 측정한다. 친밀성은 ‘나는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집단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노출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주체성 .85, 자기 수용성 .89, 미래 확신성 .86, 목표 지향성 .83, 주도성 .87, 친밀성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7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남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면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53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화 경험, 자아정체

감, 자아분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VIF 계수가 1.21~2.11로 10보다 적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연구 결과

1.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의 상관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의 상관분석을 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의 하위변인과 자아정체감 전체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에 대해 정서적 부모화($r=.11, p<.05$),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r=.48, p<.01$), 자아의 통합($r=.47, p<.01$), 가족투사($r=.53, p<.01$), 정서적 단절($r=.32, p<.01$), 가족퇴행($r=.49, p<.01$)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의 하위변인과 자아정체감 하위변인간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체성에 대해 정서적 부모화($r=.15, p<.0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r=.17, p<.01$), 자아의 통합($r=.37, p<.01$)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 수용성에 대해 불공평($r=-.09, p<.05$)이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r=.52, p<.01$), 자아의 통합($r=.30, p<.01$), 가족 투사($r=.58, p<.01$), 정서적 단절($r=.43, p<.01$), 가족 퇴행($r=.51, p<.01$)이 정적

표 1.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의 상관

변인		자아정체감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전체
부모화 경험	물리적 부모화	.07	.03	.06	.05	.05	.07	.07
	정서적 부모화	.15**	.08	.08	.08	.05	.06	.11*
	불공평	-.08	-.09*	-.06	-.06	-.02	-.10*	-.08
자아 분화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17**	.52**	.33**	.45**	.35**	.31**	.48**
	자아의 통합	.37**	.30**	.36**	.28**	.43**	.36**	.47**
	가족투사	.11	.58**	.35**	.46**	.44**	.40**	.53**
	정서적 단절	.04	.43**	.17**	.27**	.23**	.30**	.32**
	가족퇴행	.30**	.51**	.32**	.36**	.30**	.42**	.49**

** $p < .01$, * $p < .05$

상관을 보였다. 미래 확신성에 대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r=.33$, $p<.01$), 자아의 통합($r=.36$, $p<.01$), 가족 투사($r=.35$, $p<.01$), 정서적 단절($r=.17$, $p<.01$), 가족 퇴행($r=.32$, $p<.01$)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목표 지향성에 대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r=.45$, $p<.01$), 자아의 통합($r=.28$, $p<.01$), 가족 투사($r=.46$, $p<.01$), 정서적 단절($r=.27$, $p<.01$), 가족 퇴행($r=.36$, $p<.01$)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도성에 대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r=.35$, $p<.01$), 자아의 통합($r=.43$, $p<.01$), 가족 투사($r=.44$, $p<.01$), 정서적 단절($r=.23$, $p<.01$), 가족 퇴행($r=.30$, $p<.01$)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친밀성에 대해 불공평($r=-.10$, $p<.05$)이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r=.31$, $p<.01$), 자아의 통합($r=.36$, $p<.01$), 가족 투사($r=.40$, $p<.01$), 정서적 단절($r=.30$, $p<.01$), 가족 퇴행($r=.42$, $p<.01$)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의 주체성과 자아 정체감 전체에 대하여 부모화 경험의 정서적 부모화는 정적 상관이 있다. 불공평은 자기수용성과 친밀성에 부적 상관이 있으나, 자아정체감 전체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자아분화의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전 영역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주체성($F=11.65$, $p<.001$), 자기수용성($F=44.03$, $p<.001$), 미래 확신성($F=15.05$, $p<.001$), 목표 지향성($F=18.88$, $p<.001$), 주도성

표 2.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인		자아 정체감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부모화 경험	물리적 부모화	.02	-.02	-.02	.05	.13*	.08
	정서적 부모화	.17*	.13*	.13	.07	-.07	.04
	불공평	-.16*	-.01	-.09	-.08	.01	-.10
자아 분화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 기능	.13*	.23***	.18**	.25***	.19**	.10
	자아의 통합	.31***	.09*	.25***	.16**	.35***	.24***
	가족 투사	-.06	.31***	.19**	.24***	.22***	.17**
	정서적 단절	-.13*	.09	-.09	-.00	.00	.07
	가족 퇴행	.23**	.29***	.17*	.15*	.07	.21**
	R ²	.24	.54	.29	.34	.36	.32
F		11.65***	44.03***	15.05***	18.88***	21.24***	17.51***

***p<.001, **p<.01, *p<.05

($F=21.24$, $p<.001$), 친밀성($F=17.51$, $p<.001$)의 전영역의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수용성에 대한 정서적 부모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 가족 퇴행의 설명력은 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도성에 대한 물리적 부모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의 설명력은 36%이었으며, 목표 지향성에 대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 가족 퇴행의 설명력은 34%이었으며, 친밀성에 대한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 가족 퇴행의 설명력은 32%이었으며, 미래 확신성에 대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 가족 퇴행의 설명력은 29%이었으며, 주체성에 대한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즉,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를 함께 투입하였을 때 자아정체감에 있어 부모화 경험보다 자아 분화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주체성에 대해 정서적 부모화($\beta=.17$, $p<.05$),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13$, $p<.05$), 자아의 통합($\beta=.31$, $p<.001$), 가족 퇴행($\beta=.23$, $p<.01$)이 높을수록, 불공평($\beta=-.16$, $p<.05$), 정서적 단절($\beta=-.13$, $p<.05$)이 낮을수록 주체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자아의 통합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퇴행의 영향력이었다.

자기 수용성에 대해 정서적 부모화($\beta=.13$, $p<.05$),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23$, $p<.001$), 자아의 통합($\beta=.09$, $p<.05$), 가족 투사

($\beta=.31, p<.001$), 가족 퇴행($\beta=.29, p<.001$)이 높을수록 자기 수용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가족 투사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 퇴행의 영향력이었다.

미래 확신성에 대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18, p<.01$), 자아의 통합($\beta=.25, p<.001$), 가족 투사($\beta=.19, p<.01$), 가족 퇴행($\beta=.17, p<.05$)이 높을수록 미래 확신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자아의 통합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 투사의 영향력이었다.

목표 지향성에 대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25, p<.001$), 자아의 통합($\beta=.16, p<.01$), 가족 투사($\beta=.24, p<.001$), 가족 퇴행($\beta=.15, p<.05$)이 높을수록 목표 지향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가족 투사의 영향력이었다.

주도성에 대해 물리적 부모화($\beta=.13, p<.05$),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beta=.19, p<.01$), 자아의 통합($\beta=.35, p<.001$), 가족 투사($\beta=.22, p<.001$)가 높을수록 주도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자아의 통합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 투사의 영향력이었다.

친밀성에 대해 자아의 통합($\beta=.24, p<.001$), 가족 투사($\beta=.17, p<.01$), 가족 퇴행($\beta=.21, p<.01$)이 높을수록 친밀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자아의 통합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 퇴행의 영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의 물리적 부모화가 높을수록 주도성이 잘 형성되며, 정서적 부모화가 높을수록 주체성과 자기수용성이 잘 형

성되며, 불공평이 낮을수록 주체성이 잘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는 등의 물리적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수준이 높으며, 가정에서 집안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등의 정서적 부모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 자신의 역할이나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등 불공평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역할이나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분화의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 가족 퇴행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단절하려는 수준이 높다면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 건강한 분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자아분화와 자아정체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대학(원)생 538명이었다. 측정도구로 부모화 척도, 자아분화 척도,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 자아정체감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 경험의 물리적 부모화가 높을수록 목표지향성 수준이 높아졌으며, 정서적 부모화가 높을수록 주체성이 높아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가정에서 물리적·정서적 부모역할을 감당할 경우에는 자아정체감 형성이 잘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와 배려 및 책임감, 친밀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문은미, 최명선, 2007; 조은영, 2004; Allison & Sabatelli, 1988; 1985; Baik, 1997; Grotevant & Cooper, Quintana & Lapsley, 1990; Jurkovic,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서적 부모화의 경우 자신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부모와 상의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여겨 적극적인 탐색을 시도한 결과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불공평이 높을수록 자기수용성과 친밀성이 낮아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자란 경우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역기능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야기하며,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로 인해 만성불안, 스트레스, 우울이 일어 날수 있다는 연구(Defrain, 2002; Kang, 2001)와 부분

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응적인 측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나친 배려나 헌신은 자아정체감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화나 스트레스 등을 유발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아분화의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과 자아의 통합, 가족퇴행이 높을수록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이 높아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족투사와 정서적 단절이 높아질수록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이 높아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정체성, 자아분화와 목표지향성이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김정택, 심혜숙, 1992; 배제현, 1993; Archer & Waterman, 1988, Bowen, 197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 자녀관계에서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경험하며 자녀가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는 연구(Gavazzi, 1993; Sabatelli & Anderson, 1991)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모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청년기에도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 자아분화의 모든 하위변인이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적절한 부모화는 배려 및 책임감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연구(조은영,

2004; Jurkovic, 1997)와 어느 정도 적당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자아정체감 형성을 잘 이룬다는 연구(문은미, 최명선, 2007; Allison & Sabatelli, 1988; Baik, 1997; Grotevant & Cooper, 1985; Quintana & Lapsley, 1990)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화 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부모를 더 많이 걱정하고, 배려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연구(조은영, 정태연, 2005)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와의 상호 의존을 더욱 돈독히 하여 부모로부터의 자아분화를 지연시키고, 자율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연구(Erikson, 1959; Fullinwider- Bush & Jacobvitz, 1993; Karpel, 1977)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부모 역할을 많이 하더라도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욕구가 억압되고, 불만이 쌓이게 된다면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자녀 어느 누구도 지나친 희생은 가정 내 역기능을 초래할 뿐이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희생으로 인한 불공평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과 미래에 대한 주체성 확립이 어려워져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자아분화가 부모화 경험 보다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로부터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게 나타나 정체성과

같은 심리적 건강이 빨리 발달 되며, 자아분화가 잘 된 개인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으나, 역기능적 가족의 구성원은 우울을 더 많이 느끼며, 자아정체감 확립에 있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김정택, 심혜숙, 1992; 배제현, 1993; 이천숙, 이희자, 1997; Archer & Waterman, 1988, Bowen, 197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건강하게 이루지 못한다면 자아정체감 확립 등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Blos, 1979)을 의미한다. 대학생 시기에 있어 자아분화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비롯해 생활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모와 건강하게 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내 역기능적 관계형성은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초래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가족내에서 순기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때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비롯한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나 자녀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조화로운 관계유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며 지나친 희생이나 헌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을 더불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부모의 지나친 희생이나 헌신도 자녀가 부모에게 미안함을 느껴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방해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희생을 하면서까지 부모역할을 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효’라는 명목으로 지나친 희생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발달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계형성이 이루어 질 때 개인은 보다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서적 부모화의 경우, 서구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한 채 가정의 문제에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될 때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하게 된다(Bolby, 1973)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경우 부모에 대한 자녀가 부모역할을 대신해 가정내에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영향력을 미칠 경우 정서적 부모화가 강화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헌신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상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성이 정서적 부모화를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부모와 타인의 정서적 지지를 유발하여 청소년 자신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발달과업을 이루는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되어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부모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다 안정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 모두의 욕구 탐색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정체감 형성을 잘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결핍될 때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자녀가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도록 공정하게 양육하고,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동일시를 통해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만족스러워야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조화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자녀됨의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행할 때 자녀의 건강한 발달은 촉진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모두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가족간의 대화, 가족여가활동 등을 통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개발 및 활용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부모에 대한 정서적 책임 및 밀착수준이 높더라도 개인의 발달에 있어 상당히 적응적인 경향을 나타냄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이 발달의 방향이라고 보았던 서구의 성숙이론을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그러한 심정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우리 문화권의 관계주의 성숙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담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결과이다. 즉, 상담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이론과 접근 방법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이 유지 될 때 자아정체감은 보다 잘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훌륭하게 해낼 때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에게 자녀됨의 도리 체대로 알 수 있도록 돕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 응답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불성실한 응답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부모화 경험의 경우 과거 경험을 회상에 의존해 응답해야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다양한 변인으로 인해 과거의 경험 그대로를 보고하였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부모화 변인의 특성상 가족구조 분포를 알아보지 않았는데, 부모화 경험과 같은 부모자녀 변인을 연구할 때에는 가족구조 분포에 따른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경험을 연구할 때에는 아동기때부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종단연구로 접근함이 타당하고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화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변인 연구를 위해 가족구성원 전체

를 상대로 한 연구, 중년이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모화에 대한 연구, 부모화와 효의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대학 내 부모자녀관계향상프로그램·학교 생활적응프로그램·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갑준 (1998). 가족여가활동을 통한 가족복지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애, 김필숙, 박지현, 김태현 (2005).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간 정서체계 역동성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11), 31-48.
- 김경동 (1964). 태도척도에 의한 유교가치관의 측정, 한국사회학, 1, 3-24.
- 김동배, 권중돈 (1998).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연구. 서울: 한남대출판부
- 김혜은,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21-40.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발달단

- 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30-40.
-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발달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희영 (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철, 유영달 (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 노재준 (1996). 생활주기에 따른 여가태도 발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 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숙재 외 (2005). 여가문화와 가족. 서울: 신정.
- 문은미, 최명선 (2007). 부모화 경험, 부자유친성정이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 창립1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논문집.
- 박수영, 이재연 (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 박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교육과학사: 서울.
- 박아청 (1999).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40-162.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 적응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희, 김은하 (200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가족 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3), 357-366.
- 배제현 (1993).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정과 자아정체감의 발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설희 (1993).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영규 (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 적응과의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현정 (2003). 대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연세상담연구, 19, 111-127.
- 옥경희 (1999). 청년기의 자아분화 정도 및 개체화 유형과 자아정체감 발달. 학생생활연구, 6.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유승엽, 장민호 (1998).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

- 향력 원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학술발표 논문집.
- 유혜경 (2004).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남자 중학생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임 외 (1995). 현대상담 ·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윤해례 (2003). 알코올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부모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옥 (2004). 가족체계 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3), 179-193.
-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 (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23-43.
- 이영관, 송진숙 (2007). 가족체계와 여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여가 만족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 이영미, 김경화, 민하영 (2006). 육아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지각된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에 의한 청소년의 성가치관. 가정관리학회지, 24(2), 165-175.
-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 김윤희 (2000).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9(4), 429-445.
- 이차선 (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천숙, 이희자 (1997).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35(3), 101-113.
- 이호경 (1994). 가족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 68-85.
- 장사라 (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분화도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 (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혜경 (2005). 자녀의 부모화 및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833-853.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선, 강지희 (2007). 대학생 중도탈락 요인

- 및 과정 연구. 2007 한국상담학회 연차대
회심포지엄 논문자료집.
- 최봉영 (199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 사
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문화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희준, 이희자 (1994). 분리개별화와 가족 응
집력이 대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87-18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nard, H. S. (1981).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review of some empirical findings*.
Adolescence, 16, 349-358.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 generation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 (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42-90).
New York: Garden.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ess*, 32(1). 87-
103.
- Campbell, E., Adams, G., & Dobson, W.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09-525.
- DeFrain, J. (2002). Global perspective on strong
families, *Building family strengths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book June 12-14*, Shanghai,
China.
- Enright, R. D., Lapsley, D. K., Dricas, A. S., &
Fehr, L. A. (1980). Parental influence on
the developnent of adolescent autonomy and
ident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529-54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arber, B., & Jenne, W. C. (1963). Family
organiz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s and siblings of a retarded chil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 Development*, 28(7). 3-78.
- Gath, A. (1973). The school-age siblings of mong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3, 161-167.
- Greenberg, M. T., Seigel, J. M., & Lie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2(5), 373-386.
- Griffiths, M. D. (1998). *Does Internet and computer 'addiction' exist?: Some case study evidence. Paper presented at IRESSConference*, March 1998. Bristol, UK.
- Hartman, A. (1981). Bowen family systems: Theory and practices. In E. R. Tolson, W. J. Reid (ed.), *Models of family treatment*. N. Y.: Columbia Univ. Press.
- Hauser, S. T., & Bowlds, M. K. (1990).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su, F. (1985). The self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A. J. Marsella, G. De Vos., & F. L. K. Hsu, *Culture and self*. New York: Tavistock.
- Jacobvitz, K., & Sroufe, L. A. (1987). The early caregiver- child relationship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in kindergarten: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8, 1496-1504.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USA.
- Kang, H. J.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 Master's thesis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Kim, C. D., Yoon, I., & Choi, I. J. (2001).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ature Perso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Melbourne, Australia.
- Kim, U., & Choi, S. C. (1994). Chapter. 11.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Coo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226-257.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Lopez, F. G., Rice, K. G. & Shadid, G. E. (1989).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02-409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pero, D. L. (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Boston: Allyn & Bacon.
Sessions, M. W. & Jurkovic, G. J.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1 차원고접수 : 2008.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8. 05. 28.

최종게재결정 : 2008. 06. 05.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on Ego-Identity

Eun-Mi Mun

Myung-Seon Choi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on ego-identit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538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universities in Gwangju and Cheollanam-do. The instruments of the study consisted of FRS-A(Filial Royalty Scoring-Adult), Korean version of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and Korean-translated version of Self-Differentiation Scale. Correlation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analyze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and ego-identity. Second, higher level of instrumental caregiving and higher level of emotional caregiving predicted higher level of ego-identification, while higher level of unfairness predicted lower level of ego-identity. And high level of cognitive function vs. emotional function, ego-integration, family-projection, and family-regression predicted high level of ego-identity, while high level of emotional severance predicted lower level of ego-identity.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as a source in the field of counseling for young people who have difficulties in developing ego-identity.

Key words :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ego-identity